광주시, 2030년까지 AI·반도체 인재 81만명 양성

이재명 정부 'AI 인재 육성' 대응
교육·경제계·공공기관 87곳 협력
지산학연 거버넌스 체계 등 강화
姜 "지역산업 선도 핵심인재 육성"

광주광역시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기조에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지역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총 81만명의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 정책에 더해 최근 로드맵을 제시한 '2030 인재양성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산학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며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미래산업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인재양성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AI사관학교를 운영해 1기 155명 수료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221명의 AI 인재를 배출했다. 올해 제6기 330명을 최종 선발해 7개월 간의 AI 전문가 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실감콘텐츠 기술인력과 실감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GCC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1기 132명의 전문 인재를 배출했고, 올해 제2기는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140명을 선발해 교육 중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AI 교육강화 기조에 발맞춰 '2030 인재양성 전략'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산학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200억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적극 활용해 대학이 지역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글로컬대학30'에 예비지정된 전남대와 조선대의 혁신과제에 지역전략 산업들이 촘촘히 연계돼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종 선정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11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교육계, 경제단체, 산업계, 공공기관 등 87개 기관·단체와 함께 '2030 광주 인재양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보고회에서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LIGHT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30년까지 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을 이끌 산업기술 인재 35만명 양성과 미래교육도시 기반 확산을 위한 인재 46만명 등 총 81만명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30 인재양성 전략'의 성공을 위한 지산학연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6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AX미래전략산업 추진 간담회'에 참석, AX실증,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메디헬스케어 등 지역주력산업과 대학 정책과제 등 산학협력 방안과 공동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그동안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통해 AI·콘텐츠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를 꾸준히 배출했다"며 "앞으로도 AI 선도도시의 강점을 살려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과 지산학연 협력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지역산업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전KDN,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밸리산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AI·ICT 접목 '에너지 공공실증단지' 조성

광주경자청·한전KDN·도시공사 협약
신재생에너지·광주형 시민펀드 조성

광주광역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밸리산단 등 인공지능(AI)·정보 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공공 실증단지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전KDN㈜,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밸리산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AI, ICT를 접목한 공공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광주형 시민펀드 등을 통해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공공 유휴부지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광주형 시민펀드 조성 △AI/ICT기술 활용 공공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산단 활성화 지원 △한전KDN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공공형 신사옥 신축·인허가 등 행정 지원 등이다.

한전KDN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내에 449억원을 투자, 부지 3150㎡, 연면적 약 6000㎡ 규모의 지상 6층 공공형 사옥인 광주전라제주본부 사옥을 신축할 예정이다. 또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 모델로 '광주형 시민펀드'를 조성하고, AI·ICT를 접목한 공공 실증단지 사업에도 적극 협력한다.

정상아 기자

광주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광주 광산구청 직원들이 9일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인 월곡동 일대에서 불볕더위에 취약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과 함께 보냉패치를 나눠줬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18일까지 회기 돌입

광주광역시의회가 9일 본회의장에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보고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안' △환경복지위원회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의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문화위원회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포함됐다.

동의안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부지·건물)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무상대부 동의안'이 상정됐고 보고안으로는 '시립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안' 등이 올랐다.

특히 14일부터 17일까지는 2025년도 첫 시정질문이 실시된다. 시정질문에는 서용규·이명노(14일), 박수기·임미란(15일), 심창욱·이귀순(16일), 교육행정 시정질문에는 이명노·박수기(17일) 의원이 각각 나선다.

정성현 기자